

- 주요 뉴스: 연준 마이턴 이사,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침체 위험 증가. 실업률에 주목
 - 미국, 베네수엘라産 원유 수송선 나포 지속. 중국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
 -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부동산 기업 완커는 채무불이행 일시 모면
 - 일본 카타야마 재무상, 외환시장에서 무제한의 재량권(Free Hand) 사용 가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AI 버블 우려 완화, 완화적 통화정책 전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말 산타렐리 기대, 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성탄절 휴일 전 거래 감소 속 식료품주 약세 등으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시사에 따른 엔화 강세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5%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일본 장기 국채금리 상승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과 일본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강보합

※ 뉴욕 1M NDF 증가 1478.0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80.1원, 0.00% 상승). 한국 CDS 강보합

		12/22일	12/19일	전일대비			12/22일	12/1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78.5	6,834.5	+0.64%	국채 금리 10y	미국	4.16%	4.15%	+2bp
	유럽	586.75	587.50	-0.13%		독일	2.90%	2.90%	+0bp
	중국	3,917.4	3,890.4	+0.69%		영국	4.54%	4.52%	+1bp
	일본	50,402	49,507	+1.81%	CDS 5y	한국	22bp	22bp	+0bp
	한국	4,105.9	4,020.6	+2.12%		중국	44bp	44bp	+0bp
환율	달러지수	98.26	98.60	-0.34%	위험 지표	EMBI+	-	271	-
	유로화	1.1762	1.1710	+0.44%		VIX	14.08	14.91	-5.57%
	엔화	157.05	157.75	+0.45%		WTI유	58.01	56.52	+2.64%
	위안화	7.0370	7.0410	+0.06%	원자재	구리	542.5	544.0	-0.28%
	원화	1,480.1	1,476.3	-0.26%	금	4,443.6	4,338.9	+2.4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마이런 이사,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침체 위험 증가. 실업률에 주목

- 마이런 이사는 인터뷰에서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 단기 측면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실업률 상승으로 연준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은 이어질 수 있다고 발언
- 특히 최근 실업률이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이는 비둘기파적 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부연. 또한 9월 이후 3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하여 1월 FOMC에서의 0.50%p의 인하 가능성은 줄었다고 평가.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첨언
- 현재 다수의 위원들은 당분간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아울러 시장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 1~2회의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한편, Rosenberg Research의 로젠버그 대표는 미국 노동시장이 수축하고 있다면서 연준의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평가. 또한 기업 중심으로 AI 투자가 활발하지만,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70%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AI 투자 붐이 미국 경제 전체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UBS, 내년 미국 주가 상승 예상. Nvidia는 내년 음력 설 이전 중국에 AI 칩(H200) 출하

- UBS는 올해 주가 상승의 경우 기업 실적 개선 효과가 크며, 주가수익비율(PER) 등 밸류에이션은 연초에 비해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 내년에도 추가 금리인하, 비둘기파적 성향의 신임 연준 의장, 관세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향후 수 주 동안 조정을 겪을 수 있으나, 내년 말에는 S&P500지수가 77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한편 로이터에 따르면, Nvidia는 내년 음력 설 이전에 자사의 AI 칩(H200)을 중국에 출하할 계획. 그리고 이를 위해 생산설비도 추가할 방침. 하지만, 중국 당국이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아 관련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 현재 중국 당국은 반도체 자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Nvidia의 AI 칩 구매 시 중국산 반도체도 함께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 미국, 베네수엘라産 원유 수송선 나포 지속. 중국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

- 12/22일 미국은 베네수엘라産 원유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파나마 국적의 유조선을 나포. 이미 2척의 유조선을 나포한 미국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거래를 차단. 이에 베네수엘라는 도둑질 혹은 납치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판
- 시장에서는 러-우 전쟁과 함께 미국-베네수엘라 갈등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높여 유가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

■ ECB 슈나벨 이사, 당분간 금리인상 불필요. 카지미르 위원은 필요 시 개입 강조

- 슈나벨 이사는 당분간 금리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한다면 결국 금리인상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언급. 한편,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인 카지미르 위원은 현재 인플레이션 전망에 만족하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다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

■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부동산 기업 완커는 채무불이행 일시 모면

- 인민은행은 일반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 및 5년물 LPR(각각 3.0%, 3.5%)을 모두 동결. 다만 공산당 지도부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금리인하 등을 천명했기에 내년에는 일정 수준의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한편,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는 채권자들이 채무 20억위안의 유예기간을 30일로 연장하여 일시적으로 채무불이행을 모면

■ 일본 카타야마 재무상, 외환시장에서 무제한의 재량권(Free Hand) 사용 가능

- 카타야마 재무상은 외환시장에서 경제 기초 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면 무제한의 재량권으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 금리인상에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던 엔화는 이번 발언 이후 강세로 전환. 재무성의 미무라 재무관 역시 환율의 과도한 움직임에는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23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4분기 GDP, 10월 내구재수주·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산업생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금융권의 내년 증시 낙관론, 불확실성 과소평가한 위험한 현실 안주 - 블룸버그

(Wall Street is bullish on '26. Assume it's wrong)

- 다수의 투자은행들은 내년에도 S&P500지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의 과거 예측성과는 매우 저조. 지정학적 변수, 기술혁신 등으로 1년 뒤 지수 수준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또한 현재 시장은 일부 종목의 영향력이 매우 커서 거시적 분석의 유효성은 제한적
- 다만 스트래티지스트들의 내년 S&P500지수 전망 범위(7,000~8,100)가 좁다는 점은 위험한 낙관론을 반영. 강세론자는 기업이익 성장, 재정 부양, AI 수혜 확산 등을 주장하는 반면, 약세론자는 AI 거품 붕괴와 노동시장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 내년은 '지루한 해가 아닐 가능성이 크며, 컨센서스에 안주하는 태도는 위험

■ '25년 미국 노동시장, 인력 감축임금 상승 둔화 등으로 한계 직면한 한 해 - WSJ

(The Year the Job Market Hit a Wall)

- 올해 노동시장은 좋지 않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진행. 연말에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 중단 기업이 증가하고, 임금 상승세는 둔화되었으며, 실업자 수는 40만명 늘어나며 780만 명에 도달. 아울러 올해 현재까지 50만개 미만의 일자리가 창출(160만개, '24년) 되었고, 11월 실업률은 4.6%로 '21년 이래 최고치
- 한편, 경기침체 시 가장 먼저 발생하는 현상인 흑인 실업률 상승(2%p 상승)과 AI로 인한 청년층 등 초급 노동자의 실업률 상승 등은 고용 악화 지속 가능성을 시사. 특히, 노동 수요 완화로 인한 임금 상승세 둔화는 수년간 고물가에 지쳐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심을 안겨줄 소지

■ '25년 아시아의 '이지머니(Easy Money)', 내년에도 반복되기는 어려울 전망 - 블룸버그

(Easy Money Defined Asia in 2025. It Gets Harder Now)

- 올해 아시아에서는 성장 부진, 낮은 인플레이션, 트럼프 상호관세 우려 감소,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 등으로 '이지머니(Easy Money: 저금리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상태)' 시대가 전개.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내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기는 어려울 소지
- 첫째,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의 적극적 개입 부재로 완화적 정책 기대 약화. 둘째, 중앙은행 총재 임기 초반에는 정책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이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는 예상을 하회할 소지. 셋째,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 결정 가능성. 넷째, 호주 등 일부 국가의 인플레이션 상승. 다섯째,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

■ **미국 금융당국,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한 은행파산 방지 대책이 필요 - 블룸버그**

(Five Ways to Stop Banks From Failing)

- 은행이 파산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요. 실제로, 과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에서 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전성 유지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제기. 이에 우선순위와 목표 등에서 다음과 같은 금융당국의 변화가 요구
- 첫째, 우려 요인이 명확할 경우 적극적인 개입 필요. 둘째, 건전성과 관련된 중요 사안 파악에 초점. 셋째, 복잡한 규제보다는 은행의 실제 대응 시나리오 마련 유도. 넷째, 당국과 은행의 문제인식 공유. 다섯째, 은행에 대한 당국의 비공개 시정조치 공개회를 통해 주주 대상 정보제공 및 경영진의 신속한 문제 해결 유도

■ **미국 관세정책, 재산압화 등이 목표이며 무역적자 감소 등으로 실효성 입증 - Financial Times**

(The year of the tariff)

■ **사상 최고 수준의 미국 자동차 대출 연체율, 소비여력 둔화 징후일 소지 - 블룸버그**

(Why Americans Are Falling Behind on Auto Loans At Their Highest Level Ever)

■ **미국 연말 소비, 부유층에 의존하는 K자형 불균형 심화 - Financial Times**

(Happy K-shaped Christ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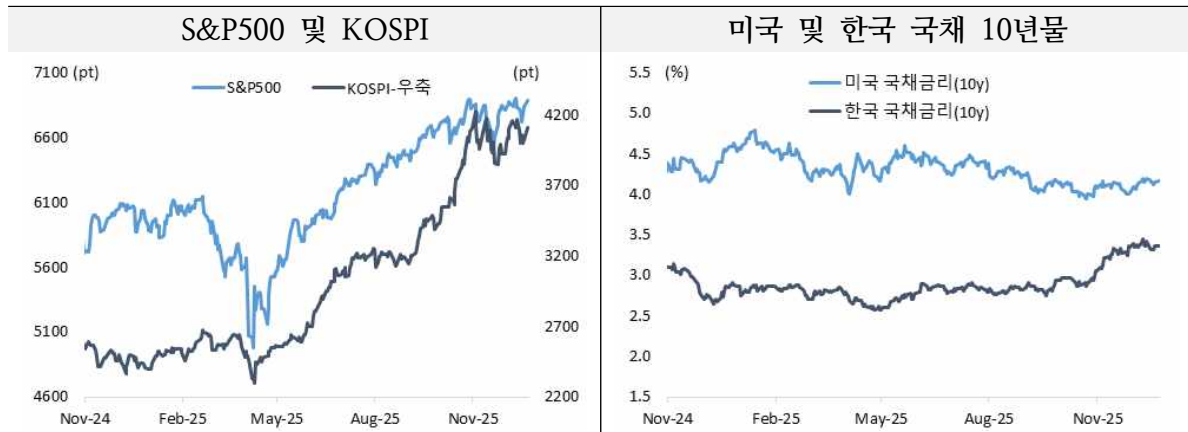
■ **전세계 중견국, 미국 리더십의 약화 등으로 새로운 불확실성 시대 직면 - Financial Times**

(Middle powers face a new age of uncertain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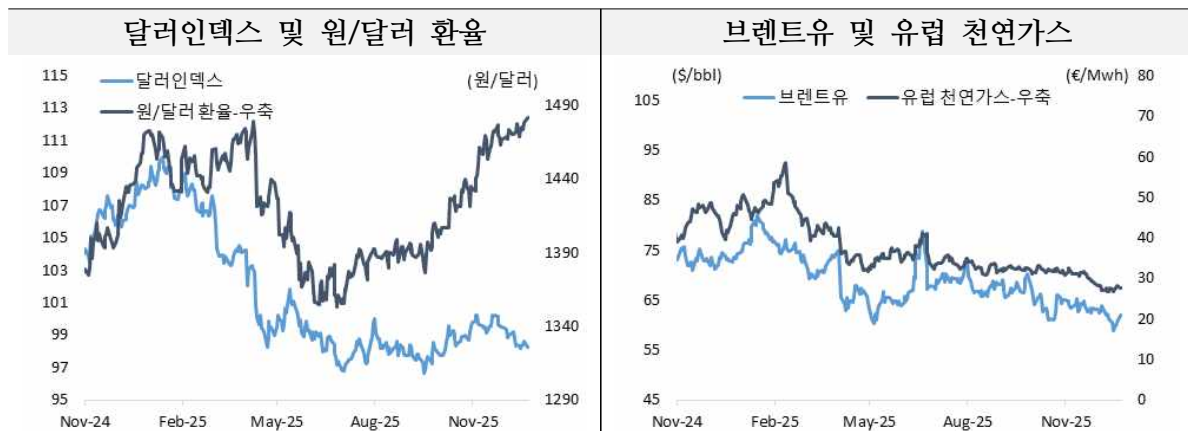
■ **전 세계 신생 AI 기업의 과도한 인프라 투자 확대, AI 버블 우려 증대 - 블룸버그**

(AI Data Center Gold Rush Driven by Thousands of Newcomer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